



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우리 근로청소년들은 소득에 비해 저축률이 높고 소비태도도 건전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 주부교실이 최근 慶北 龜尾 善山지구 실태조사

이들의 소득을 보면 10만 원 이하 62%, 1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4%, 20만원 이상 9%였는데 이중 5만 원 이하를 저축하는 사람이 38%, 8만~10만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18%나 됐다.

이들 청소년들은 또 외국 상품에 대해 과반수 이상(52%)이「관심이 없다」고 응답했고「외국 상품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상품을 써야 한다」고 응답한 사람이 30%나 돼 외제선호 취향의 도시청소년들과 같은 대조를 보였다.

근로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 물건구입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. <저축하기 위해 창구에 선 근로청소년들>

외제선호 취향의 도시청소년들과 같은 대조를 보였다. 외제선호 취향의 도시청소년들과 같은 대조를 보였다. 외제선호 취향의 도시청소년들과 같은 대조를 보였다.

근로청소년

88.6.28

월급 반이상저축자 많다

外製 부정적...백화점 이용 4%
물건살때 설명서 꼭 읽는다 95%

관한 것을 보면「광고에 의해」(23%)보다「자신의 경험」(34%)「가족 친구들의 경험」(32%)을 중시했으며 상품구입시에는「품질」(63%)「모양색상」(18%)「가격」(12%)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다.

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구입처는「슈퍼마켓」(75%)「재래시장」(13%) 등이었으며 백화점 이용률은 4%로 낮았다. 또 이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취급설명서나 주의사항을 읽어보는 경우가 95%나 돼 일반청소년보다 물

건구입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.